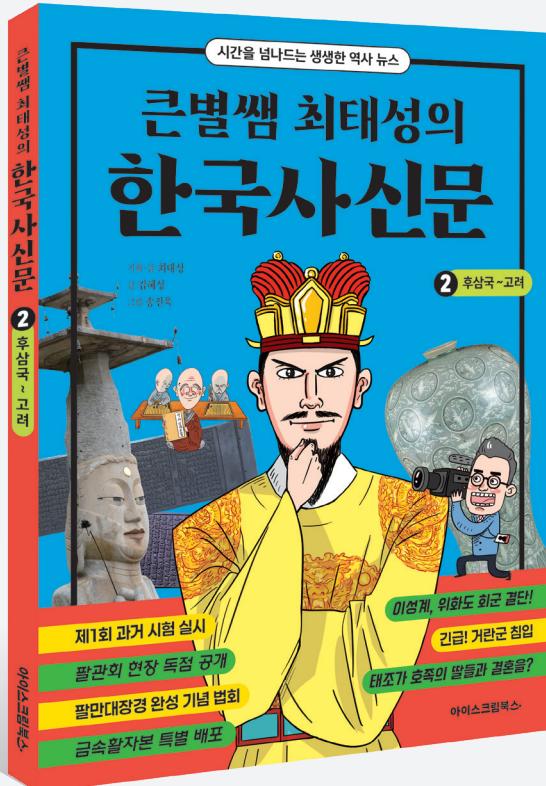


시간을 넘나드는 생생한 역사 뉴스

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②



독서
지도안

#큰별쌤 최태성

#한국사신문

#문화력 UP

#역사적 사고력 UP

기획 · 글 최태성

글 김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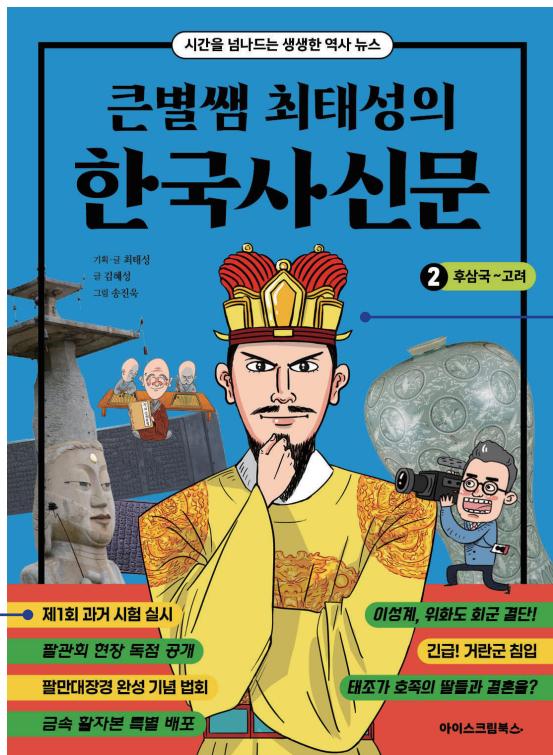
그림 송진욱

700만 수강생이 선택한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강사이자,
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저자가 큰별 기자가 되다!

광복 80주년, 초등 한국사의 ‘새로운(新) 문(門)’이 열리다!

우리 역사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결정적 사건과 장면들을 ‘신문 기사’의 형식과 ‘기자가 된’ 큰별쌤의 목소리를 빌려,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한국사 시리즈입니다. 스토리텔링이 강점인 큰별쌤 최태성 저자의 장점을 살려, 생생한 전달력으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• 책을 읽기 전에 •



1 표지 중앙에 나온 인물은 누구일까요?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.

2 표지에 나온 주요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,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.



•  책을 읽으면서 •

1 다음 그림을 보고 관련 있는 기사 헤드라인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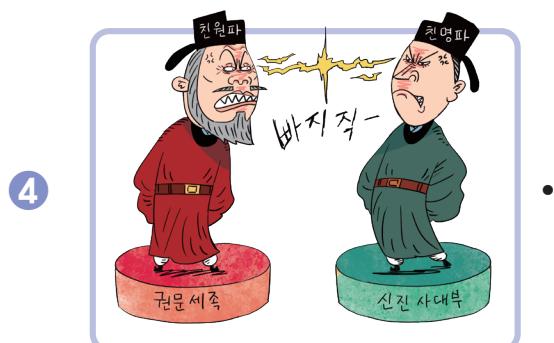
• 원의 고려 내정 간섭
날로 심해져



• 외교 기로에 선 고려
명이냐 원이냐



• 예종, 국립 교육 제도
개혁 추진해



• 광종, 고려에
개혁 바람 몰고 와

2 다음 설명을 읽고, 해당하는 단어와 인물에 ○ 해 보세요.

- 1 송악을 수도로 삼아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.

궁예

견훤

왕건

- 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세운 고려의 왕.

태조

광종

성종

- 3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 끝에 거란군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.

강감찬

서공

서희

- 4 이규보가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(주몽)에 관해 쓴 서사시.

동명왕편

삼국유사

제왕운기

- 5 별무반을 구성하는 부대 중 하나로,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부대.

신기군

신보군

향마군

3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. ()

- ① 발해 유민을 적극 포용하였다.
- ② 거란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였다.
- ③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하였다.
- ④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.

4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. ()

- ① 골품제가 실시되었다.
- ② 팔관회가 개최되었다.
- ③ 아들과 딸이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다.
- ④ 성별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.

5 원 간섭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으면 O,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.

- ① 원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았다. ()
- ② 지배층을 중심으로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()
- ③ 고려는 원 황제의 사위의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. ()
- ④ 친원적 성향의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을 이루었다. ()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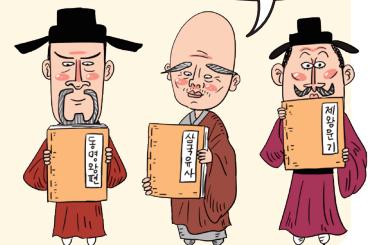
『팔만대장경』은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침입 속에서 만들어진 불경이에요.
고려 시대의 기자가 되어, 『팔만대장경』을 소개하는 기사를 써 보세요.

★ 기사를 쓰기 앞서, 미리 조사하고 생각해 보세요!

[예시]

- 『팔만대장경』은 왜,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?
- 『팔만대장경』은 어떻게 만들었을까?
- 『팔만대장경』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?
- 오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소식은 무엇일까?
-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점은 무엇일까?

☆ 힌트 ☆
〈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〉
2권 110~111쪽을 읽어 보세요!



기사
제목

2

고려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노비 ‘만적’은 신분 해방 운동을 펼쳤지요. 아래 설명을 읽고,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- ✖ 노비 만적은 “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?”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노비들과 함께 신분 해방 운동을 펼쳤어요. 어렵게도 다른 노비의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, 그가 시대에 던진 질문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요.

» 만적은 신분제라는 당연한 틀을 깨고자 했고,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어요. 만적을 영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어떤 사람을 ‘영웅’이라고 생각하나요?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3

태조 왕건은 죽기 전에 '훈요 10조'를 남겨요. 자신이 죽은 뒤에 권력을 놓고 다투지 말고, 힘을 합쳐 고려를 잘 이끌어 가라는 뜻을 담아서 말이지요. 태조 왕건의 말풍선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써 보고, 그림도 자유롭게 색칠해 보세요.



정답 및 해설

정답

1. ① – ② / ② – ⑤ / ③ – ⑦ / ④ – ⑨
2. ① 궁예 ② 성종 ③ 서희 ④ 동명왕편 ⑤ 신기군
3. ②
4. ①
5. ① X ② O ③ O ④ O

오답 체크!

3. ②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에 반감을 가지고 거란과의 국교를 단절하였다. 거란에서 온 사신을 유배 보내고, 함께 온 낙타를 굶겨 죽이기도 하였다.
4. ①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 제도이다.
5. ① 원은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에서 금, 인삼 등 많은 특산물을 가져갔다.

짧고 강렬하게 구성된 신문 기사로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!

**<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> 시리즈와 함께
한국사 마스터가 되어 보세요!**

